

##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간의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비교 연구\*

김용태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국 문 요 약

최근 대학 내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과 지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창업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수강생의 참여도 및 교육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 이론 및 정보의 전달을 위주로 하는 이론형 창업 강좌와 아이디어 발굴과 시제품 제작 등의 과정이 포함되는 창업실습 등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창업 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인식 차이가 있는지, 아울러 창업동기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창업동기 요인중에서 사회적 인식을 제외한 창업교육, 성취욕구, 인적네트워크, 자존 욕구 등은 두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험형 창업강좌 학습자들이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보다 창업동기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업가정신 요인은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간의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체험형 창업강좌 학습자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보다 창업의지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업동기 요인 가운데 창업교육과 성취욕구, 기업가정신 요인 중에서는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양적 확대 위주의 창업교육의 방향과 창업교육의 질적 효과 창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향후 체험중심의 창업교육 (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핵심주제어: 체험형 창업강좌, 이론형 창업강좌,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해외 선진국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교육을 확산함으로써 창업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최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년창업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창업교육 및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전국 61개 창업교육센터 설치 및 지원을 통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 확대와 다양한 창업문화를 조성해오고 있는 교육부는 대학 내 창업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을 수립하고, 세부 실행전략으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일방적인 정보 전달위주의 창업교육이 아니라 실제 창업가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 등을 창업 동아리 또는 실제 창업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체험형 창업강좌 (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Class)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창업교육의 목적 및 효과, 효율적인 교수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체험위주의 창업 강좌를 적극 개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잠재적 창업자 (Nascent Entrepreneur) 발굴을 위한 창업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창업관련 정보 위주의 창업교육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자의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대학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체험형 창업강좌와 일반적인 이론중심의 창업강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해 보고, 학습자의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해 분석을 통해 체험형 창업강좌의 필요성과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학 내 체험

\* 이 논문은 2017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ytkim@nsu.ac.kr

· 투고일: 2018-07-16 · 수정일: 2018-08-13 · 게재확정일: 2010-08-29

형 창업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창업교육 교수법에 대한 활발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1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 특성

일반적인 창업교육의 형태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그리고 멘토링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주요 특징 및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용태, 2017).

이론교육은 기업이 정신 함양,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지원 정책 등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태도와 세부적인 스킬, 이론적 지식 그리고 창업 관련 정보를 강의형태로 제공해 주며, 다수의 교수 또는 창업 교육 전문가가 주제별로 분담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강사가 강의 주제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강의하거나 강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성고가 떨어진다.

실습교육은 ‘청년인턴제’와 같은 현장실습과 모의창업 시뮬레이션 형태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실습은 교육생들이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사업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체험함으로써 현장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교육이다. 이러한 현장실습교육 형태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모의창업 시뮬레이션 교육은 예비창업자들이 팀을 이루어 팀별로 지급되는 창업 종자금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팀원 중에 한명의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실제로 창업을 경험해보는 팀 단위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본인의 창업 아이템 아닐 경우 참여도가 떨어지고, 팀원이 많을 경우 무임승차하는 팀원이 발생하며,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종자금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멘토링 중심의 교육은 선배 창업자가 교육생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 검증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도와주고, 멘티의 네트워크 증진에 기여한다. 멘토링 교육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명의 멘토가 다수의 멘티를 팀 멘토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팀 멘토링을 통해 팀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창업교육 방식은 다양하게 진행 되지만 현장실습 인프라와 멘토 네트워크가 갖추어지지 않는 대학교의 창업 교육은 대부분 이론 중심의 창업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멘토링 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론교육과 병행한 체험형 교육 또는 멘토링 교육이 아닌 이론 교육 이후 일부

멘토링 교육을 하거나 교육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창업교육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교육과 지원 정책 하에 지자체, 기관, 학교 등에서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대학을 비롯하여 민간, 지방자치 단체들을 위주로 창업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창업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창업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대학과 대학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비즈니스 마인드와 경영, 경제적 사고를 길러주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최종인·양영석(2012)은 대학원의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학부의 창업교육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해외대학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프로세스 중심의 교육을 중심으로 알고리즘 기반의 창업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술시장의 틀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사업화 (TEC) 프로그램의 도입과 확산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질 좋은 창업교육’을 위하여 이론 중심의 교육과 사례 중심의 옴니버스 강의에서 벗어나 프로세스를 통한 ‘자기주도적 창업실습훈련’이 필요하며 사업현장의 정보와 노하우를 창업자들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창업과정에서의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하여 프로세스별로 자기주도 창업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워크시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코치진과 선배기업가로 구성된 멘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황보운·양영석(2012)는 창업교육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창업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검증된 창업교육 콘텐츠와 창업교육 강사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창업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양질의 교육자, 교육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성순(2009)은 창업교육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이유를 체계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제해결 중심의 실용적인 창업교육 콘텐츠, 능력을 갖춘 전문강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창업교육에서 중요한 교육은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으로 보았으며,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솔루션이 국내에는 부족하여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시스템’의 Prototype을 개발하여 창업교육 콘텐츠의 질을 향상 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조사 결과를 정리해보면, 현재 국내 창업교육의 공통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창업교육 콘텐츠 부족과 체험적 창업교육 활성화, 창업 멘토와 같이 창업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 Skill을 가르쳐 주는 창업교육이 아닌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고 그에 대해 지원해주는 창업교육 콘텐츠의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

## 2.2 창업 동기

창업동기 (Entrepreneurial Motivation)는 창업과정을 통해 독립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조직을 통제하며 지휘하고자 하는 열망 또는 의지를 말한다. 창업동기는 기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창업 자체의 성공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대학의 창업교육은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창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창업동기를 제공하고 기업가정신을 강화시켜 준다. 이러한 창업교육은 수강자에게 창업동기를 부여하고 교육생의 창업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창업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성공적인 창업자 양성을 위해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초기 창업을 위한 촉매제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 미국 내 MIT나 Harvard, Stanford 대학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수의 졸업생이 창업에 성공하는 경험적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창업의지와 성공은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가르쳐 질 수 있다. 이러한 창업교육 참가와 벤처 창업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창업교육과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이 오히려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창업할 가능성이 높다.

창업동기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Scheinberg & MacMillan(1988)은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가 인정 욕구 (Need for Approval), 독립 욕구 (Need for Independent), 자기개발 욕구 (Need for Personal Development), 복지에 대한 고려 (Welfare Consideration), 부의 방편 (Perceived Instrumentality of Wealth)등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Birley & Westhead(1994)는 세금 감면과 간접적 혜택 (Tax Reduction and Indirect Benefits), 역할 모델 (Follow Role Models) 등을 추가하였다. Leffel(2008)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창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이 바람직하다고 느낄수록”, “개인 특성이 진취적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창업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기업가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Mckelvy(1982)는 창업자가 동일 자질의 집단이라는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창업자는 비창업자와 다른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교육적 배경하에서 양성될 수 있으며 창업자들간에도 그들이 성장에도 배경에 따라 창업에 관한 자질은 물론 창업동기와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창업가의 동기는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가 개인이 가진 차별성, 아이디어, 비전, 행동, 전략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비전과 목표, 타인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창업가의 동기적 특성을 부각시켰다. Butter & Moore(1997)는 직장에서의 제한된 승진기회, 불안정성, 실업에 따른 부정적 창업동기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창업동기요인이 창업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창업동기는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창업 분야의 목표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개인적 특성, 업종, 시장상황, 규모, 창업지역 등에 따라 심리적, 경제적, 비경제적, 사회적인 다양한 동기가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창업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창업동기에 대한 연구는 보다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창업동기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해보면 창업동기는 창업교육, 독립심과 성취욕구 (자아실현 욕구), 인적 네트워크, 사회적 인식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취업의 대안으로서 창업을 고려하는 등 오늘날 대학생의 창업동기는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다양한 창업강좌의 형태 및 방법에 따른 창업동기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창업동기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창업강좌의 형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및 학습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수강생의 학습자간 차이에 주목하여 두 개의 집단간에 창업동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는 창업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3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은 오늘날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경제 환경에서 개인적 변화와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며 나아가 사회문화적인 혁신의 원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기업가정신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발굴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Baron & Shane, 2005), 개인이나 조직이 주어진 자원에 구애받지 않으며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기업가적 과정(Stevenson & Jarillo, 1990), 새로운 조직의 설립(Gartner, 1985), 사회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행동(Schumpeter, 1934)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기업가정신은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기업가적 역량이며, 혁신과 진취적인 과정을 통해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역량과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초기 연구는 기업가들의 성취 욕구 (Need for Achievement), 통제의 소재 (Locus of Control), 모호

함에 대한인내 (Tolerance of Ambiguity), 위험감수성 (Risk Taking) 등의 심리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가의 행동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가정신이 심리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성장을 위해 위험을 추구하고 진취적이며 혁신적으로 행동한다는 행동적 접근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하겠다(Hitt & Sexton 2001).

Miller(1983)는 기업가정신을 제품과 시장의 혁신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으로 대응하여 경쟁자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태도라고 하였으며, 이외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로 혁신성 (Innovativeness), 위험감수성 (Risk Taking), 그리고 진취성 (Proactiveness)을 제시하고 있다(Barrett, 1996; Barringer, 1995; Covin & Slevin, 1986). 혁신성은 시장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서 제품의 디자인, 시장조사,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며, 위험감수성은 급변하는 환경을 선호하거나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의미한다(Lumpkin & Dess, 1996). 그리고 진취성은 유사한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수요에 부응하려는 경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수강생의 학습자간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는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4 창업의지

심리학의 연구 분야에서 어떠한 계획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증명된 요인은 바로 의지 (Intention)이다. 창업은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계획된 행동 (Planned Behavior)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계획된 행동인 창업을 예측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은 바로 창업의지 (Entrepreneurial Intention)를 측정하는 것이다.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창업교육의 만족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쳐 창업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결론이 대부분이다. 창업을 위해서는 개인의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즉 창업의지가 발생되어야 한다. 창업의지는 창업 행위의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이라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다. 또, 의지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창업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의지는 개인의 태도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이다(Krueger, 1993).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이다. Shapero(1982)는 창업의지를 창업 이벤트모델 (Entrepreneurial Event Model, EE)을 통해서 나타내었는데, 즉 실직이나 이민

등과 같은 개인의 중요한 생애 이벤트 (Life Event)는 개인의 선택을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개인은 창업에 대해 고려하게 되고 이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에는 창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창업은 계획된 행동이라 볼 수 있으므로 창업의지에 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전제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중요성에 따라 창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증대로 창업의지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수강생의, 학습자간 창업의지에 대한 인식 및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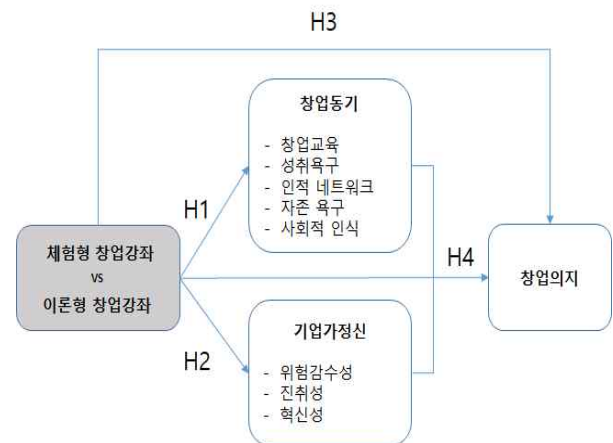
**가설 3: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I. 실증연구 설계

###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우선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개의 집단 간 구성요인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도 연구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 ‘체험형 창업강좌’는 아이디어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링,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의 창업 시뮬레이션, 창업 경진대회 등 학생 스스로 창업 과정을 일부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창업강좌로 정의하였으며, ‘이론형 창업강좌’는 체험형 창업강좌와 달리 창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을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사이버 강좌형태의 창업강좌로 한정하였다. 측정항목들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창업동기 요인은 관련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창업교육, 성취 욕구, 인적 네트워크, 자존 욕구, 사회적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창업교육 변수는 김성순(2009)의 측정 변수에서 8개 항목을 활용하였다. 성취욕구는 윤방섭(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5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인적 네트워크는 개인이 창업을 할 경우 정성적,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집단으로서 Manning et al.(1989)과 김성순(2009)의 연구에서 4개 항목을 활용하였다. 자존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와 존경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Maslow, 1943)할 수 있으며 김성순(2009)의 연구에서 4개의 측정변수를 활용하였다. 끝으로 사회적 인식은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의미하며 윤방섭(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2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으로 측정하였다. 위험감수성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거나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으로 정의(Miller, 1983)하며, 이지우(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진취성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태도를 가지고 경쟁자와 비교해서 적극적인 성과를 산출하려는 의지를 의미하고, 혁신성은 아이디어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과정의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2가지 변수는 김성순(2009)의 연구를 토대로 3개 항목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창업의지는 창업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며 창업에 대한 행위 및 의도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창업의지에 대한 측정은 선행연구를 활용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 3.3 표본 선정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창업 관련 과목을 수강하거나 수강한 경험이 있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2,600부 중에서 응답이 부실한 130부를 제외한 2,470부를 실제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중 1,130부는 체험형 창업강좌, 1,340명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설문지 분석은 SPSS 21.0을 활용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이, 그리고 학습자들의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 창업의지에 대한 요인 추출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t-test를 통해 측정 변수간에 있어서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체험강좌 학습자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 IV. 연구분석 결과

###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조사에 체험형 창업강좌 수강생이 1,195명, 이론형 창업강좌 수강생이 1,405명으로 총 2,600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 유효성 검증과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470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체험형 창업강좌 수강생의 경우 남성이 63.1%(712명)로 여성 36.9%(418명)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 연령대는 20대가 96%(1,085명), 그 다음으로 30대(2.6%), 기타(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석결과 저학년(1-2학년)이 56.3%, 고학년(3-4학년)이 43.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학년이 354명(27.2%)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 비중을 보였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라도 지역의 응답자가 340명(30.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22.5%), 수도권(18.7%),경상(15.5%), 강원/제주 149명으로 총 13.2%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전공계열별 분석결과 공학계열 응답자가 39.8%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인문 사회계열(35.2%), 자연과학계열(12.7%), 기타(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론형 창업강좌(온라인 창업강좌 수강생) 수강생의 경우 남성이 67.2%(901명)로 여성 32.8%(439명)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 연령대는 20대가 95.4%(1,278명), 그 다음으로 30대(3.8%), 기타(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석결과 저학년(1-2학년)이 54.3%, 고학년(3-4학년)이 45.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학년이 419명(31.3%)으로 역시 가장 많은 응답자 비중을 보였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라도 지역의 응답자가 390명(29.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23.5%), 충청권(17.7%), 경상권(14.5%), 강원/제주권 203명으로 총 15.2%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전공계열별 분석결과 공학계열 응답자가 38.8%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인문 사회계열(36.2%), 자연과학계열(11.7%), 기타(13.3%) 순으로 나타났다.

###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요인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주성분 분석과 직각 회전방식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 eigen-value 1.0 이상, 요인 적재값은 0.4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적합도 평가는 Kaiser-Meyer-Olkin 척도와 Bartlett's Test of Sphericity를 통해 검증하였다.

KMO 통계량은 전체 자료와 개별 자료의 표본 적합도를 평가하고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를 평가하고 변수들이 독립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였다. Bartlett's Test of Sphericity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KMO값이 크게 나타날 경우 변수간의 상관행렬이 요인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변수요인인 창업동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23개의 측정 변수 중에서 '자아실현 달성', '사업과정에서 의지할 수 있는 친지 및 가족이 존재' 등의 2개의 변수가 제거되었다. 각 요인별로 분산 설명력을 살펴보면 요인 1(창업교육)은 21.1%, 요인 2(성취욕구) 15.4%, 요인 3(인적 네트워크) 12.2%, 요인 4(자존 욕구) 11.1%, 요인 5(사회적 인식) 8.2%이며, 전체 분산 설명력은 67.9%로 나타났다. KMO값은 .87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는 2659.341(p<.000)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에 이용된 표본들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인 분석 결과 도출된 각 변수요인에 대하여 Cronbach's "값을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교육이 .887, 성취욕구는 .865, 인적 네트워크 .776, 자존 욕구가 .655,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801로 나타나 연구 변수들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Hair & Black, 1998).

<표 1> 창업동기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변수명	요인 적재값	eigen -value	분산 설명력	크론바흐 알파
창업 교육	창업교육 1	.834	4.353	21.087	.887
	창업교육 2	.824			
	창업교육 3	.767			
	창업교육 4	.727			
	창업교육 5	.680			
	창업교육 6	.675			
	창업교육 7	.556			
	창업교육 8	.472			
성취 욕구	성취 욕구 1	.824	3.232	15.434	.865
	성취 욕구 2	.787			
	성취 욕구 3	.727			
	성취 욕구 4	.643			
	성취 욕구 5	.610			
인적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1	.834	2.457	12.181	.776
	인적 네트워크 2	.799			
	인적 네트워크 3	.688			
자존 욕구	자존 욕구 1	.798	2.329	11.055	.655
	자존 욕구 2	.723			
	자존 욕구 3	.563			
사회 인식	사회적 인식 1	.894	1.871	8.167	.801
	사회적 인식 2	.843			
총분산(%), 67.924, KMO .87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2659.341(p<.000)					

<표 2>와 같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Covin & Slevin(198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각 요인별로 분산 설명력을 살펴보면 요인 1(위험감수성)은 24.5%, 요인 2(진취성) 20.4%, 요인 3(혁신성) 18.9%이며, 전체 분산 설명력은 63.9%로 나타났다. KMO값은 .90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는 918.020(p<.000)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이용된 표본들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 위험감수성

.774, 진취성 .691, 그리고 혁신성 .787로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표 2> 기업가정신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변수명	요인 적재값	eigen -value	분산 설명력	크론바흐 알파
위험 감수성	위험감수성 1	.743	2.433	24.533	.774
	위험감수성 2	.725			
	위험감수성 3	.674			
	위험감수성 4	.605			
진취성	진취성 1	.768	2.052	20.422	.691
	진취성 2	.635			
	진취성 3	.634			
혁신성	혁신성 1	.787	1.978	18.933	.787
	혁신성 2	.745			
	혁신성 3	.628			
총분산(%), 63.888, KMO .90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918.020(p<.000)					

마지막으로 창업의지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이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3> 창업의지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변수명	요인 적재값	eigen -value	분산 설명력	크론바흐 알파
창업 의지	창업의지 1	.903	3.476	69.878	.888
	창업의지 2	.851			
	창업의지 3	.872			
	창업의지 4	.847			
	창업의지 5	.687			
총분산(%), 69.878, KMO .863,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720.264(p<.000)					

### 4.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모형 내 단일 차원성이 검증된 각 연구 변수들간의 방향과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0.01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각 측정변수들 간의 방향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 변수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창업교육	1.000								
성취욕구	.563**	1.000							
인적 네트워크	.480**	.346**	1.000						
자존 욕구	.397**	.589**	.287**	1.000					
사회적 인식	.409**	.181**	.290**	.060	1.000				
위험감수성	.397**	.584**	.309**	.403**	.154**	1.000			
진취성	.369**	.543**	.282**	.445**	.243**	.620**	1.000		
혁신성	.348**	.539**	.409**	.344**	.178**	.645**	.643**	1.000	
창업의지	.687**	.734**	.385**	.454**	.256**	.554**	.467**	.465**	1.000

\* p<0.05, \*\* p<0.01

### 4.4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차이 검증

본 연구에서는 체험형 창업강좌 수강생과 이론형 창업강좌 수강생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창업동기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사회적 인식(t=1.187)을 제외한 창업교육(t=6.027), 성취욕구(t=5.856), 인적 네트워크(t=3.212), 자존 욕구(t=3.545) 등의 변수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험형 창업강좌 수강생의 경우 자존 욕구(M=4.633, SD=.41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성취욕구(M=4.450, SD=.554), 창업교육(M=4.206, SD=.627), 인적 네트워크(M=3.446, SD=.9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론형 창업강좌 수강생의 경우 자존 욕구(M=4.387, SD=.687), 성취욕구(M=3.935, SD=.834), 창업교육(M=3.705, SD=.673), 인적 네트워크(M=3.080, SD=.957)의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의 평균값의 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체험형 창업강좌 학습자의 평균값이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보다 높게 나타나 체험형 창업강좌 학습자들이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보다 창업동기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창업동기 차이 분석

구분	체험형 창업강좌		이론형 창업강좌		t	p
	Mean	SD	Mean	SD		
창업교육	4.206	.627	3.705	.673	6.027	.000**
성취욕구	4.450	.554	3.935	.834	5.856	.001**
인적네트워크	3.446	.935	3.080	.957	3.212	.002**
자존 욕구	4.633	.412	4.387	.687	3.545	.001**
사회적 인식	3.233	.932	3.178	.873	1.187	.241

\*\*p<0.01

다음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체험형 창업강좌 학습자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 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표 6>과 같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감수성(t=1.760), 진취성(t=1.304), 혁신성(t=0.859)의 통계값은 두 집단간의 차이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해석해볼 때 체험형 창업강좌 학습자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간의 기업가정신 인식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표 6> 기업가정신 차이 분석

구분	체험형 창업강좌		이론형 창업강좌		t	p
	Mean	SD	Mean	SD		
위험감수성	4.106	.607	3.905	.721	1.760	.078
진취성	4.201	.584	3.835	.723	1.304	.186
혁신성	3.546	.685	3.530	.821	.859	.398

\*\*p<0.01

마지막으로 창업의지에 대한 체험형 창업강좌 학습자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표 7>과 같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t=5.254)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체험형 창업강좌 학습자(M=4.177,

SD=.713)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M=3.648, SD=.870)보다 창업의지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창업의지 차이 분석

구분	체험형 창업강좌		이론형 창업강좌		t	p
	Mean	SD	Mean	SD		
창업의지	4.177	.713	3.648	.870	5.254	.000**

\*\*p<0.01

### 4.5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 <표 8>과 같이 창업동기 요인 가운데 창업교육( $\beta = .376, t=7.197$ )과 성취욕구( $\beta = .472, t=7.740$ )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가정신 요인 중에서는 위험감수성( $\beta = .157, t=2.876$ )만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를 비교해 볼 때 두 집단에서 동일하게 창업동기 요인 중 창업교육과 성취욕구, 기업가정신 요인 중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험형 창업강좌 학습자의 경우는 창업교육, 성취욕구, 위험감수성의 순으로 나타나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의 경우 성취욕구, 창업교육, 위험감수성의 순서로 나타나 성취욕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변수는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정도를 알 수 있는 VIF값은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R<sup>2</sup>는 전체적으로 67.4%, 체험형 창업강좌가 62.7%,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는 67.5%로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 8> 창업동기,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비교

변수명		체험형 창업강좌	이론형 창업강좌	전체	VIF
통제변수	성별	.094(1.306)	-.054(-1.011)	.000(-.002)	1.127
	연령	.087(.591)	-.039(-.564)	-.031(-.347)	5.346
	거주지	.001(.008)	-.032(-.616)	-.044(-1.033)	1.207
창업동기	창업교육	.527(5.697)	.335(4.315)	.376(7.197)	1.955
	성취욕구	.316(3.456)	.531(6.176)	.472(7.740)	2.655
	인적 네트워크	-.081(-.995)	.058(.978)	.013(.276)	1.474
	자존 욕구	-.082(-1.024)	-.108(-1.622)	-.101(-2.033)	1.703
	사회적 인식	-.094(-1.226)	.030(.530)	-.014(-.341)	1.387
기업가정신	위험감수성	.187(2.002)	.167(2.175)	.157(2.876)	2.223
	진취성	.166(1.801)	-.079(-1.040)	.008(.154)	2.154
	혁신성	-.124(-1.194)	.039(.510)	-.011(-.197)	2.233
F	12.397	21.645	40.251		
R <sup>2</sup>	.627	.675	.674		
p	.000	.000	.000		

주) ( )안은 t값임. 성별은 Dummy 변수(남성 1, 여성 0), 연령, 거주지는 명목척도로 처리함

## V. 결론

###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져온 일반적인 이론 전달 중심의 창업교육과 최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 (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수강생의 인식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체험형 창업강좌 학습자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창업의지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와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창업교육 확산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형 창업강좌 학습자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 간의 창업동기에 대한 t-test분석 결과 창업교육 및 성취욕구, 인적 네트워크, 자존 욕구 등에 있어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 요인에 대한 평균값을 볼 때 체험형 창업강좌 학습자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체험형 창업강좌 학습자의 창업 동기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아이디어 발굴 및 시제품 제작, 모의 시뮬레이션 등의 체험적 강좌를 수강하는 학습자가 창업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동기 유발을 갖게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사회적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기업가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문화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 간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 차이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업가정신에 대해 두 집단의 높은 평균값에도 불구하고 집단 간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의지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체험형 창업강좌 학습자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체험형 강좌 학습자의 경우 창업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의 창업동기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본 결과 체험형 창업강좌 학습자의 경우 창업교육, 성취욕구, 위험감수성의 순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반면,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의 경우 성취욕구, 창업교육, 위험감수성의 순으로 나타나 보다 효과적인 창업교육을 위해서는 체험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론형 창업강좌를

통해서 개인의 성취욕구를 북돋아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동기 요인 가운데 인적 네트워크, 자존 욕구, 사회적 인식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기업가정신 요인 중에서 진취성과 혁신성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구체적인 창업 준비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인력 등 대인 관계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업가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구체적인 창업을 위한 동기 유발 등이 부족함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제고하고 창업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공공기관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꾸준히 요구되며 아울러 다양한 체험 위주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체험 위주와 정보 전달 위주의 학습자로 분리하여 두 집단 간의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창업의지에 있어서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대학 내의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창업교육의 전략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설문 대상자가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연구 집단의 대표성에 있어 한계를 나타낼 수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예비 및 초기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면 창업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별, 연령, 학년 등이 각각의 분석 집단에서 조절 변수로서의 영향을 미치는 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도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

- 김성순(2009).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김용태(2017).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가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2), 13-20.
- 윤방섭(2004). 창업의지 결정요인: 개인특성과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17(2), 89-106.
-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한국중소기업학회지*, 22(1), 121-146.
- 최종인·양영석(2012).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 *벤처창업연구*, 7(1), 125-134.
- 황보운·양영석(2012). 창업대학원 설립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7(1), 113-123.
- Baron, R., & S. Shane.(2005). *Entrepreneurship : A Process perspective*, Southwestern, Thomson, Cincinnati, OH 35-62.



- Barrett, H.(1996). *Relations among corporate entrepreneurship, marketing mix factors and business performance*, School of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45-67.
- Barringer, B. R.(1995). *The performance implications of achieving a fit betwee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strategic management practices*,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A Dissertation of Ph. D. 23-44.
- Birley, S., & P. Westhead.(1994). A taxonomy of business start-up reasons and their impact on firm growth and siz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4), 7-31.
- Butter, E. H., & Moore, D. P.(1997). Women's Organizational Exodus to Entrepreneurship: : Self-reported Motivations and Correlates with Succ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4(4), 18-29.
- Choi, J. I., & Yang, Y. S.(2012). The Improvement Pla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125-134.
- Covin, J. G., & D. P. Slevin.(1986).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an organizational-level entrepreneurship scale*,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Wellesley, MA; Babson College, 628-639.
- Gartner, W. B.(1985).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 696-706.
- Hair, J. F., & W. C. Black.(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 Hitt, S. M., & D. I. Sexton.(2001). Guest editors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strategic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trategies for wealth cre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6), 479-491.
- Hwang, B. Y., & Yang, Y. S.(2012). A Study on Establishment of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113-123.
- Kim, S. S.(2009). *A study on the willingness of potential entrepreneurs in Korea and China*,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Kim, Y. T.(2017).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Attitude on Undergraduate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2), 13-20.
- Krueger, N. F.(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5-21.
- Lee, J. W.(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2(1), 121-146.
- Leffel, H.(2008).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 for new technology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s in a university and entrepreneurs in a university environment*, PICMET 2008 Proceedings, Cape Town, July.
- Lumpkin, G. T., & G. Dess.(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anning, K., S. Birley., & D. Norburn.(1989). Developing a new ventures strateg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1), 68-76.
- Maslow, A. H.(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 Mckelvy, B.(1982). *Organizational Systematics-taxonomy, evolution, classification*, Braum-Brumfield.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Scheinberg, S., & L. C. MacMillan.(1988). An 11 Country Entrepreneurship Study of Motivations to start a Business, *Frontier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Wellesley, MA; Babson College, 669-687.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4.
- Shapero, A.(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Illinois Academy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Historical Research Reference in Entrepreneurship.
- Stevenson, H., & J. C. Jarillo.(1990). A paradigm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management, *Journal of Strategic Management*, 2, 17-27.
- Yoon, B. S.(200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Business Review*, 17(2), 89-106.

# A Comparative Study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between the Students of 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Class and Theory Centered Class\*

Kim Yong Tae\*\*

## Abstract

In recent years, various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various types of entrepreneurship and comparative activities according to policy efforts and support such as the activation of a bachelor's degree in the establishment of a university, and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fact that the participation and the educational effect of the students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case of 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class focusing on the theoretical-oriented general entrepreneurship class, And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data were collected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ut of the motivation factors of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education, achievement desire, human network, self - esteem, etc. We can confirm that the motivation of entrepreneurs is recognized more greatly. Second, the entrepreneurship factor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perception between 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lecture and theoretical entrepreneurship learner. Third, 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learner perceived more willingness to start business than theoretical entrepreneurship learner. Finally, among the entrepreneurship motivation factors, among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chievement desire and entrepreneurship factor, the risk sensitivity affects the entrepreneurial will.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irection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focused on quantitative expansion and the creation of qualitativ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re needed. In the future, it will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addition, it can contribute to the diffusion of research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Keyword: 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class, Theory-oriented class,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

\*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Namseou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Namseoul University ytkim@nsu.ac.kr